

모로코 출장 결과보고

〈보고자 : 인구조사과장, 인구동향과장〉

□ 개 요

2009.9.27(일)~10.2(목)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6회 세계인구 총회(IUSSP) 참석결과를 보고 드림

〈제26회 세계인구총회 개요〉

- 참가국 및 참여자 : 130개국 약 2,500명이 참석 (논문 1,700편)
 - * 우리나라에서는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,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, 박은태 세계인구총회 공동유치위원장, 전광희 인구학회장, 통계청 인구조사과장과 인구동향과장 등 총 21명 참가
- 회의진행 : 13개 장소에서 220개 공식회의개최, 750개의 포스터 발표, 45개의 전문가 회의 등 개최 ⇒ 기후변화에 따른 인구이동, 국내 및 국제인구이동, 사회복지, 저출산·고령화 등 논의
- 세계인구총회(International Union for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)는 4년마다 개최되며, 우리나라는 2013년 제27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 중

□ 참가자 주요 활동내용

- (복지부 차관) Haug 유엔인구기금 기술국장 (9.27), Lahlimi Alami 모로코 기획부 장관, McDonald IUSSP 차기 의장 면담(9.28)을 통해 한국에서 제27차 세계인구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
- (유치단) IUSSP 차기 이사후보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제27차 세계인구총회 개최 필요성 및 장점 설명 (홍보자료 활용)

□ 제27차 세계인구총회 유치 전망

- (절차) 유치신청서 제출(12.15), IUSSP 실사단 심사(12월말) 후 유치장소를 결정(2010.1월중)할 예정
- (유치 희망국) 현재 우리나라, 호주, 캐나다 3개국이 경쟁하고 있고, 표면상으로는 한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으나,
- (전망) 호주출신인 차기 IUSSP 의장 Peter McDonald가 호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우리나라 유치를 낙관하기는 어려움

□ 기타 활동사항

- 콩고의 Ronald C, SCHOENMAECKERS 박사가 통계청 대표단을 찾아와 콩고 인구센서스 지원 가능성을 문의(9.28)

* 콩고는 1984년 제1회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고, 2011년 7월에 제2차 인구센서스를 준비하고 있으며, 현재 센서스 수행에 필요한 예산 200만불을 모금 중

□ 향후 조치 및 건의사항

- (세계인구총회 관련) 향후 세계인구총회에 우리청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인구분야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
 - 2013년 IUSSP를 국내로 유치할 경우 통계청에서 인구관련 Session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- (콩고 인구센서스 지원 관련) 제3세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KOICA 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
 -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UNFPA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
 - 2010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중 콩고 센서스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현장교육실시도 가능